2019 호루라기 부는 날

올해의 호루라기 시상식

■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산 다미아노



양심의소리
호루라기재단

2019 호루라기 부는 날

올해의 호루라기 시상식

■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산 다미아노



양심의소리

호루라기재단



2019 호루라기 부는 날

올해의 호루라기 시상식

- **일 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산 다미아노
- **식 순 :**

개회사	사회자 : 이해관 호루라기재단 이사
인사말	이영기(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내빈 소개	사회자
축사 및 격려사	이문옥(전 감사관, 공익제보자) 박원순(서울시장)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심사평 발표	이정환(미디어오늘 대표)
호루라기상 시상식 및 수상소감 발표	◇ 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임희진 장00 박진술 · 박진숙(가명) ◇ 2019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김동희 · 김정민(MBC 〈PD수첩〉)
사진 촬영	참석자 모두
경품 추첨	사회자
축하 공연	吉音판소리(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폐회	사회자

※ 주최측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호루라기 부는 날

목 차

2019 올해의 수상자	5
심사평: 이정환(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심사위원장)	6
수상소감1. 임희진(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13
수상소감2. 장00(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15
수상소감3. 박진술 · 박진숙(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17
수상소감4. 김동희 · 김정민(2019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19
역대 수상자 소개	21
吉音판소리 소개	35

2019 올해의 수상자

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임희진(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동물학대와 불법적 운영 제보)

장00(군납 입찰 비리 제보)

박진술 · 박진숙(가명, 비허가 스텐트 납품 업체 제보)

2019 올해의 호루라기언론상

김동희PD · 김정민PD(MBC 〈PD수첩〉)

심 사 평

이 정 환

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심사위원장 / 미디어오늘 대표

가. 심사의 경과

1. 호루라기재단은 만연하는 비리와 부패, 낮은 인권 의식과 연고주의, 심각한 양극화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것, 즉 공익을 위해 용감하게 고발에 나서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보고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위험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고 불의에 맞서는 양심의 목소리를 응원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호루라기재단의 목표이고 사명입니다. 1년에 한 번, 호루라기상 수상자를 시상하기 위해 모이는 이 자리는 우리 사회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열정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2. 호루라기재단에서 "양심적 행위를 장려하고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매년 호루라기상을 제정해 시상한지 올해로 여덟 해째입니다. ‘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선정을 위하여 호루라기재단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기간에 한정을 두지 않아 후보의 폭을 넓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호루라기상 수상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 심사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는 공익적 활동 부문 열두 후보, 언론 부문 아홉 후보, 총 스물한 명(단체)이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3. 호루라기재단은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가나다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박흥식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이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4. 심사위원회는 11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2시간여 동안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를 올해의 심사위원장으로 호선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호루라기상 제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난 일곱 차례 심사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철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 기준을 확정하고 각각의 후보자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했습니다.

○ 호루라기상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공익을 위한 양심적 행위로서의 성격
○ 민주사회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및 파급 효과
○ 공익과 인권을 위한 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과 헌신
○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희생의 가능성과 정도
○ 활동의 시기 및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 활동의 중요도, 공익활동의 직업과의 관련성 및 외부 지원 여부
○ 동일한 활동으로 이미 다른 표창을 받은 바가 있는지 여부 등 호루라기상의 제정 목적을 더욱 확산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사유

5. 심사위원회는 올해 추천을 받은 모두 스물한 명(단체)의 후보자 모두가 호루라기상 수상자로서 손색이 없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가 살아있고 한국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진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 방식은 각각의 후보들에 대해 기본 정보를 공유한 뒤 심사위원들

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후보자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호루라기상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수상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6. ‘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심사위원회와 호루라기재단을 지원하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비록 이번에 선정되지는 못하셨더라도 우리 사회의 공익과 인권의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후보자 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나. 수상자 심사평

1. 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 임희진(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동물학대와 불법적 운영 고발)
○ 장00(군납 입찰 비리 업체 고발)
○ 박진술, 박진숙(가명, 에스엔지바이오텍 비허가 스텐트 납품 고발)

올해의 호루라기상 후보로 열두 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산업 재해와 의료 비리, 납품 비리, 공직 사회와 병원, 학원, 시민단체까지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낡은 관행과 그늘을 들추는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각의 사례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 의미를 짚으면서 토론에 토론을 거듭했지만 수상자를 압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곱 명의 심사위원들은 특별히 이들의 공익제보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런 변화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가, 이들이 공익제보 이후 불이익 또는 위험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에게 호루라기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를 거듭 검토한 끝에 세 팀의 수상자를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세 팀의 수상자와 이분들이 만든 변화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임희진 님은 동물보호 단체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단체가 동물권 보호를 명분으로 식용으로 키우던 동물 농장을 급습해 '구조'한 뒤 몰래 안락사시켜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임희진 님은 폭로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퇴사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케어의 행동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동물권 보호의 범위와 안락사의 기준을 두고 사회적 토론이 시작된 데는 임희진 님의 공익제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00 님은 군부대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만구의 입찰 비리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사 정 아무개 사장이 이동호 당시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억대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입찰 비리를 무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내부고발자였던 장00 님은 제보 이후 회사로부터 공갈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납 비리를 넘어 법조 비리까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공익제보였습니다.

박진술, 박진숙(가명)님은 인조혈관용 스텐트 업체 에스앤지바이오텍이 4,000여 개의 비허가 스텐트를 생산해 병원 등에 납품한 사실을 공익제보했습니다. 이 업체는 비허가 제조 및 납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품 포장 박스에는 허가받은 모델명을 기재하고 비허가 제품을 집어넣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판매 중지·회수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 됐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제조 책임과 관리·감독 강화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우천학원의 불법 회계 전용과 업무상 횡령 등을 공익제보한 권종현 님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을 제보한 고미란(가명) 님, 위디스크의 디지털 성폭력 카르텔의 구조를 드러낸 김경욱 님, 백제병원의 불법과 비리 및 유착 의혹을 공익제보한 김인규 님, 카이스트의 병역부실 관리 실태를 고발한 김장근 님, 늘푸른요양병원의 의료법 위반 등을 공익 제보한 김종백 님, 구미시청의 지방 보조금 횡령을 고발한 박영백 님, 다나은한방병원의 급여비용 부당 청구 등을 신고한 신태현 님,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를 공익제보한 이종헌 님 등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아쉬운 마음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2019 올해의 호루라기언론상

○ 김동희·김정민(MBC 〈PD수첩〉 PD/‘얼음왕국의 추악한 비밀’ 방송에서 빙상계 내부 폭력 실태 보도)

올해의 호루라기언론상은 모두 9명(단체)의 후보가 추천됐고 이 가운데 한 팀을 최종 수상사로 선정했습니다. 호루라기언론상은 공익제보가 단순히 제보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공익제보 확대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언론과 언론인을 기리는 상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언론이 얼마나 제보자 보호에 신경을 쓰고 끝까지 제보 내용을 추적해서 진실과 실체를 드러냈는가, 그리고 보도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MBC 〈PD수첩〉 ‘얼음왕국의 추악한 비밀’은 전현직 국가대표 빙상 선수들과 코치들,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빙상연맹의 파벌과 승부 조작, 관행적인 폭력과 성폭행 등의 문제를 들춰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은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에서 출발해 조재범 코치의 개인적 일탈에 끝나지 않고 ‘빙상 대통령’으로 불리는 전명규 교수의 코치 시절까지 추적해 이 문제가 한국 체육계의 구조적 병폐였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는 수상자를 한 팀밖에 선정하지 못했지만 뉴스타파의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보도, 한겨레의 김성태 의원 딸 부정 취업 의혹 보도, 셜록프레스의 탐사 보도 시리즈 등이 유력한 수상 후보로 검토됐습니다. 이밖에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리즈 기사를 누락한 자사 데스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경향신문 기자 77명과 MBN 차명 주주 의혹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한 MBN 직원,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싸우는 박준동 전 조선일보 노동조합 위원장 등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언론의 내부 고발이라는 측면에서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의 사례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호루라기언론상은 상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끌어내기까지의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는 공익제보의 확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

자는 데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모았고 언론인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공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 심사평 소감

내부고발과 공익제보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해마다 호루라기상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감내해야 했을 외로움과 두려움, 절망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이해와 배치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조직에서 퇴출되거나 온갖 불이익과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이 불신과 냉대, 조직적 저항에 부딪혀 오랜 기간 고통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용기가 단단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은 기득권을 강화하고 은밀한 유착과 결탁으로 부정과 부패의 사슬을 강화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조직의 위계와 권력 구조 아래 차별과 착취를 제도화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면서 침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때,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말할 때 세상은 비로소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촘촘한 법과 제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의 논리와 집단의 이익, 권력화된 이해관계 동맹의 담합과 유착을 깨뜨리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외롭고 두려운 일이지만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공익제보는 세금 낭비를 막고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부당한 이익과 착취를 처벌하고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거나 거대한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용기와 결단을 지지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2019 호루라기상을 수상하신 박진술, 박진숙 님과 임희진 님, 장00 님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구조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가역적인 변화를 촉발한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입니다. 2019 호루라기언론상을 수상하신 MBC 〈PD수첩〉의 김동희·김정민 PD님은 언론이 공익제보를 어떻게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는지 모범 사례를 보여준 분들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정의로운 양심의 목소리와 이들의 지지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과 '호루라기언론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 그동안의 시련과 고통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상하지 못한 후보 여러분과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의 운영진과 활동가, 후원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양심의 목소리들이 더욱 널리 전파되고 변화의 희망과 확신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호루라기재단이 양심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굳건하게 자리잡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상소감 1

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임 희 진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동물학대와 불법적 운영 제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제보를 결심했을 당시에는 개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기업이 아니고 동물들을 위하는 후원자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잘못된 것을 알리게 되면 바로잡을 수 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년 전에도 반복되었듯이 솜방망이 처벌과 교묘한 거짓 행동으로 본인의 죄를 남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동물 구조라는 미명 아래 본인의 죄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제보 후 직간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신분을 인정받아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매우 미약하며 공익제보 후 불이익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법률지원과 보호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호루라기재단에서 지원해주시는 공익신고자 법률지원도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보 이후에 생활이 파탄이 나고 이렇게 힘들다면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을 알리려고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호루라기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또한 과분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루라기재단 서중희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게 해주신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님과 권유림 변호사님, 진실탐사 보도해주신 셜록프레스와 뉴스타파, PD수첩 등 방송 매체에도 감사드립니다.

수상소감 2

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장 익 준

군납 입찰 비리 제보

먼저 저에게 진실의 힘을 믿어보라고 용기를 심어주신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님과 김영희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왜 제가 이 상을 수상해야 하는지 만약 상을 수상하면 제 주변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에 수상거부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됐든 제 신변이 노출되어 위험해지고 온갖 오해와 비난이 쏟아진다고 해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스스로 자각했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 귀한 상을 수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서는 내부제보자들을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 본인이 불리하니까 이용하려고 한다는 등 항상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군인이었고, 큰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화랑무궁훈장, 아버지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받았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사람은 내 부모자식이라도

용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고, 지금도 공금 횡령자이자 사기꾼으로 낙인찍혀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으로 꼭 살아서 다시 저를 버린 이 사회에 복귀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는 돈이나 권력으로 이길 수 없는 진실과 정의가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통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잘것없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 이 과분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상소감 3

2019 올해의 호루라기상

박 진 술 · 박 진 숙(가명)

에스엔지바이오텍 비허가 스텐트 납품 제보

너무 당연한 일을 가지고 상을 받는다는 게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10여 년 간 한 회사가 저지른 무허가 스텐트 제조, 유통, 판매를 넘어 의료계 리베이트, 대표이사 해외로의 횡령, 영업사원들의 무면허 시술 등 입으로는 담기 부끄러운 것들을 내부고발 하였습니다.

이 사실들을 알게 된 당시에는 정말 의아한 몇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 수 100명이 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아무도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이의제기나 바로 잡으려고 했었던 적이 없었던 걸까? 회사는 연구 개발부터 임상실험까지 제대로 되지도 않은 4등급 의료기기(최고등급-환자 혈관 내 설치)를 버젓이 환자들에게 시술하고, 국가는 그 시술 비용을 세금으로 급여해주며, 국내외 거물급 국가병원, 기업병원, 심지어 국가기관인 식약처에서도 왜 관리가 안 되었는지에 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KBS '추적60분'에서 일부 다루어졌는데, 수술한 대부분의 환자가 고연령의 환자이기 때문인지 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술할 때 환자에게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지 사전에 전혀 확인해주지 않고 혈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더욱이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무책임한 면피용 조치를 하며 자신들이 관리감독

못한 비허가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비허가 스텐트 제조와 유통 및 사용 관련 실제 행위자였던 업체 관계자들이나 의사 등은 전혀 입건하지 아니하고, 비허가 스텐트 제조 및 사용에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는 의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비허가(원자재 변경 포함) 스텐트 시술 도중 사망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대한 수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표자 1인만을 송치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이나 부모, 동료 등 많은 분들이 이미 피해자가 되었거나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안 한다고, 회사가 월급을 잘 준다고, 기관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잘못된 것을 덮는다고 사회의 고름은 스스로 낫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고름은 더 곪아 썩고 더 많은 살점을 도려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 회사를 바로 잡으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제가 한 당연한 일이 당연시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현재 개인의 욕망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하였으면 합니다. 저도 이 제보를 통해 거만해지지 않고, 스스로를 매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수상소감 4

2019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김동희 · 김정민

MBC 〈PD수첩〉 PD

올해의 호루라기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월 8일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 의한 성폭행 피해를 세상에 알린 직후 제작에 착수하여 2주 후 긴급편성 된 '얼음왕국의 추악한 비밀'편은 빙상계에 만연해 있는 폭행, 성폭행 문제를 고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복수의 피해자들이 조재범 코치의 폭행을 증언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재범 코치 또한 그의 스승인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게 폭행당했고, 전명규 교수는 선수의 인격을 말살하는 폭행을 동반한 지도법으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내 빙상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체벌을 지도법으로 당당히 기술해 놓기도 했습니다.

조재범 코치 사건에 다수 언론이 주목하고 있을 때, 〈PD수첩〉은 빙상계의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들춰냈고 빙상계 내부의 구조적인 원인에 집중했습니다. 폭력을 동반한 훈련을 통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빙상계를 장악한 전명규 교수는 입시, 국가대표 선발, 실업팀 취업, 징계 및 사면 과정에서 전권을 휘두르게 됐고, 폭행 및 성폭행 피해자들의 호소는 그에 의해 철저히 묻혔습니다. 전명규 교수 눈 밖에 날 경우 빙상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받았고 이는 곪고 곪아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PD수첩〉은 전명규 교수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주민진 전 국가대

표 쇼트트랙 선수와 전 교수의 폭행을 증언해 준 여준형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전명규 교수의 폭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전 교수와 제자와의 녹취를 공개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막기 위해 동원된 부적절한 방법들을 보여줌으로써 올림픽 금메달 뒤에 숨겨진 빙상계의 추악한 이면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PD수첩〉이 제기한 문제들은 제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방송 3일 후인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그동안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단순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사안의 배경과 원인을 심도 깊게 취재하여 제도 변화를 이끈 〈PD수첩〉 '얼음왕국의 추악한 비밀'편은 용감한 제보자들 덕분에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빙상계 정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제보해 준 그분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수상자 2012

2012 올해의 호루라기상	**장진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주무관**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호루라기 언론상	**경향신문사 디지털뉴스국 경향리크스**
호루라기 인권상	**군인권센터**
호루라기 인권상 특별상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2012년 11월 14일 '올해의 호루라기상' 심사위원회는 공익제보 부문에 장진수 전 주무관을, 언론·표현의 자유 부문에 경향리크스를, 인권 부문에 군인권센터를, 특별상에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호루라기상' 공익제보 부문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조작·인멸을 폭로하여 전면 재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권력이 국민을 속이는 범죄 행위가 결코 은폐될 수 없음을 경고한 공로가 평가됐습니다.

언론·표현의 자유 부문은 경향신문 디지털뉴스국의 경향리크스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익제보 사이트로 새로운 형태의 '보도'를 시도한 '경향리크스'가 우리 사회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보'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됐습니다.

인권 부문에는 군인권센터가 군대라는 특수 집단 내에서의 인권개선 활동에 기여해온 공로를 평가하여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부대 내에서의 여러 인권 침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끌어내고 이를 이슈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군 인권 운동의 개척적

공로가 평가됐습니다.

공익제보 분야 특별상에는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해관 위원장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기하여, 기업의 준법의식과 투명성, 사회적 책임 의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권 분야 특별상에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을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 투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시설 장애인들이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이슈화하는 등 인권 보장에 기여했습니다.

역대 수상자 2013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부적절한 로비와 부당한 자금운용을 공익신고한 공공기관 직원들**
호루라기 언론상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탈세보도 제작진**
호루라기 인권상	**한종선 형제복지원대책위원회 활동가**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김형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의원**

2013년 11월 29일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심사위원회는 본상인 **2013 올해의 호루라기 수상자**로 부적절한 로비와 부당한 자금 운용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내부 공익신고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이 분들은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소속 직원들로서 기관에서 임원들로부터 강제 각출한 현금으로 정치권 로비를 하고, 기관장이 업무추진비 중 절반 이상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실에 2012년 2월 내부 공익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자 징계 및 기관 경고를 이끌어냈으며 잘못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수상자들은 이로 인해 파면, 계약해지 등 조직으로부터 신분상 보복을 당하는 등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으며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직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 당시 관련 사건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이 분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2회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로는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탈세보도 제작진을 선정하였습니다. 비영리 탐사언론기관인 〈뉴스타파〉는 2012년 1월 해직 언론인 중심으로 설립되어 매주 2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 정치 및 경제 권력 남용 문제를 취재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 5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모두 33차례에 걸쳐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을 연속 보도하여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한국인의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역외 탈세 실태를 처음으로 밝히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스타파〉가 폭로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138명에 7천억 원에 가까운 탈세 추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2회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2회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자로는 한종선 형제복지원대책위원회 활동가가 선정되었습니다. 한종선 활동가는 1984년 만 8세의 나이로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1987년까지 강제수용 되어 그 곳에서 유년시절 폭력과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였습니다. 한종선 활동가는 자신이 인권 피해자라는 사실에 절망하기 보다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모임을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대책위원회의 핵심적인 활동가로 참여하여 형제복지원 사건이 2013년 안정행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의 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한종선 활동가는 인권침해 피해자를 넘어선 고발자로서, 그리고 운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높이 사 제2회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는 김형태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본인 스스로 사학재단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하고 그로 인해 해직의 고통을 경험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김형태 수상자는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익제보자들의 적극적인 보호 운동에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공익제보 관련단체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하고 제정하는 데 앞장섰으며, 그 결과 2013년 7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가결, 제정될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훈중학교 입시비리 공론화 등 교육의원으로서 역할 역시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하여 2013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수상자 2014

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	**안종훈 사립학교 내부비리 공익제보자**
호루라기 언론상	**〈뉴스타파〉 특별기획 '원전묵시록2014' 취재팀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조현미 신동윤 최윤원 김강민 김기철 김남범**
호루라기 인권상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핵심 증언자**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 '영화사 수박'**

2014년 11월 24일 '올해의 호루라기상' 심사위원회는 공익제보 부문에 안종훈 사립학교 내부비리 공익제보자를, 언론·표현의 자유 부문에 〈뉴스타파〉 특별기획 '원전묵시록2014'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조현미 신동윤 최윤원 김강민 김기철 김남범 취재팀을, 인권 부문에 윤일병 집단구타 삼아사건 핵심 증언자를, 특별상에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 '영화사 수박'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 공익제보 부문은 사립학교 내부비리를 공익제보한 안종훈 씨를 선정했습니다. 심각한 회계 비리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하게 학사 문제에 개입하고 독선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등 전횡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4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의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같은 해 7월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이사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인의 회계와 인사 비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3회 호루라기 언론상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의 특별기획 '원전묵시록2014' 취재팀을 선정했습니다. 〈뉴스타파〉 특별기획 '원전묵시록

2014’ 취재팀은 2014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들 가운데 하나인 ‘안전 문제’, 그 중에서도 피해규모와 양상은 치명적인 반면 대중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핵발전소의 안전관리와 이를 둘러싼 ‘핵 마피아’의 실태를 진지하고도 끈질기게 연속보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료 발굴과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는 심층취재와 대안 제시로 언론의 지평을 확장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3회 호루라기 인권상에는 2014년 가장 큰 인권 사안 중의 하나였던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핵심증언자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의병 전역한 병사로서,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들과 상의했고, 가족들로부터 이 상을 기꺼이 받겠다는 뜻을 확인했지만 그동안 사실 관계를 잘못 안 네티즌들의 과도한 신상털기 등으로 본인과 가족이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익명으로 시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의 핵심증언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알림으로써 군대 내의 인권 상황과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큰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호루라기 부는 사람’의 모범을 보였다고 판단해 제3회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14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인 ‘영화사 수박’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05년 겨울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줄기세포 조작사건’을 모티브로 한 진실 추적극입니다. 〈제보자〉가 이렇게 공익제보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 고뇌와 이를 극복해나가는 시민적 용기를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보자〉가 공익제보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에까지 나아간 것도 고맙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 '영화사 수박’이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호루라기를 불어주었다고 보고 2014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역대 수상자 2015

2015 올해의 호루라기상 **전경원(하나고교 교사)**
호루라기 인권상 **김동애, 김영곤(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호루라기 언론상 **강진구(경향신문 논설위원)**

2015 올해의 호루라기상은 전경원 하나고 선생님이 수상했습니다. 전 선생님은 서울특별시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양심과 진실에 따라 개교 이후 지속되어 온 입학성적 허위 기재로 인한 남녀 합격생 조작,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은폐”한 사실 등을 증언했습니다. 전경원 선생님은 이러한 사실의 언론 보도 후, 재단 측으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에 시달렸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시 2015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하나고의 교육 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전 선생님의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선생님의 용기있고 양심적인 증언은,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영재고 등 학생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선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입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4회 호루라기상 인권 부문에서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김동애 김영곤 님이 수상했습니다. 김동애 김영곤 님은 한성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 중 강사 노조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강사들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8년째 천막 농성을 계속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노예적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강사들의 가정과 자녀를 돌보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국회 앞뿐 아니라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등에서 농성투쟁을 하는 등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5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인 경향신문 강진구 논설위원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노동전문기자로 노동자 보호 이슈에 천착한 활동 중,

“노동3권을 억압하는 사법부의 행태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총7회에 걸친 시리즈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노동법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법 위반, 해고 위협, 변칙적인 근로계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현장을 고발”하여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오늘날 어떻게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고통받고 있는가, 노동자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법과 제도의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기획보도 중에는 “국내 최초로 25년간의 정리해고 및 쟁의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전수분석”하여 “대법원 선고 중 85.5%가 ‘업무 방해’를 이유로 노동자 파업을 위법하다”고 판결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는 등 노동권 신장에 기여한 노력이 평가되었습니다.

역대 수상자 2016

2016 올해의 호루라기상 **신인술(해상벙커C유 불법유통 제보자)**
호루라기 언론상 **전필건(독립탐사전문기자)**
호루라기 특별상 **김재천(호치민 총영사관 영사)**

2016 올해의 호루라기상 공익제보 부문은 유류 불법 유통 공익제보 사례인 신인술 씨입니다. 신씨는 유류운송회사에서 해상벙커C유를 불법으로 혼합하여 유통시킨 사례를 2016.8.26.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에 고발하여 현재 이헌철 사장 등 관련자 5명이 구속됐습니다. 해상벙커C유는 황이 일반 벙커C유와 비교하여 13배가 높은데다 각종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유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유류입니다. 특히 이 건 신고는 검찰과 세무서의 부실수사 및 은폐 행위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신고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회사 쪽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신씨는 2016.11.7. 이번 사건을 부실수사했거나 은폐하려 한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의 해당 검사와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신인술씨의 내부고발 사례가 유류 유통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집행기관의 부패 및 나태를 고발하여 공익과 인권을 위한 사회적 기여와 파급효과가 큰 반면 공직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희생이 매우 큰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제5회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인 전필건 독립탐사전문기자는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왔습니다. 전필건 기자는 등록금의 비밀에 대한 탐사보도를 지속하여 수원대 사학비리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의 커넥션, 김무성 대표 차녀 교수 특혜 채용 사실을 발굴하는 등 언론고발로 인하여 사학의 비리 전모를 파헤치는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전필건 기자의 경우 특정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끈질긴 취재정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점, 사재를 털어 사회고발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6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는 김재천 호치민 총영사관 영사입니다. 국정농단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위기로 몰아넣어 국민의 공분을 산 최순실 일가 인사개입 의혹을 현직 외교관 신분으로 언론인터뷰를 통해 제기하여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구명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김 영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최 씨의 조카 장승호 씨가 민주평통자문위원에 임명된 배경과 교민 초청 대통령 만찬에 당초 명단에 없던 장 씨가 윗선(?)의 지시로 뜬금없이 참석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교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고발의 전형을 보여주는 용감한 행동이었기에 호루라기 특별상을 통해 그 용기와 결단을 온 국민과 더불어 격려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역대 수상자 2017

2017 올해의 호루라기상	**김은숙(국가보조금 횡령 제보)** **박헌영(최순실 국정농단 제보)** **안성익(이마트직원 불법사찰 제보)** **정미현(서울미술고 회계비리 제보)**
호루라기 언론상	**박종화PD, 박대용 정형민 기자(뉴스타파)** **조일준 류이근 임인택 임지선 최현준 기자 (한겨레신문사)** **김용출 팀장, 백소용 이우중 임국정 기자 (세계일보사)**

2017 올해의 호루라기상 첫 번째 수상자는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께서 추천하신 국가보조금 횡령 등 공익제보 사례를 이끌어 낸 김은숙 님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및 부설 희망상담소가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사기행위를 벌인 데 대해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5회 호루라기언론상 수상자이신 전필건 기자님과 하주희 민변 교육청소년위 변호사께서 추천하신 박헌영 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박헌영 님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항쟁의 계기가 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제보자입니다.

세 번째 수상자인 안성익 님은 조한일 박선숙 의원실 비서관 등 많은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신세계 이마트가 직원들을 불법사찰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익제보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수상자는 이선경 호루라기재단 이사님이 추천하신 정미현 님입니다.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상의 회계부정과 무허가업체의 급식납품문제 등 사학비리를 제보하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제6회 호루라기 언론상 첫 수상자는 뉴스타파 뉴미디어팀 박종화 피

디와 박대용·정형민 기자입니다. 해병대사령부 덕산스포텔에 복무 중인 상당수 병사들의 단체 공익제보를 통해 군대내 폭력과 비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공공기관 부정채용 민낯'이라는 제목아래 강원랜드 부정채용 게이트 등 공공기관에서 자행된 전반적 부정채용 실태를 고발한 한겨레 기획보도팀입니다.

마지막 수상자인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갈 길 먼 공익제보' 기획시리즈를 통해 27년간 있었던 102건의 주요 공익제보를 전수조사하여 공익제보가 조직과 사회에 미친 성과와 제보자들이 겪은 보복과 고통 등을 추적하여 공익제보의 의미를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세 수상자들은 상업화하고 정치적으로 오염되어온 한국 언론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공익확산기능에 모범사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호루라기 언론상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거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주어지는 상임과 동시에 우리사회에 호루라기를 불어 양심을 깨우는 행위와 연계된다는 특별한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익제보성이 강하거나 그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을 특히 고려하였습니다.

역대 수상자 2018

2018 올해의 호루라기상 **서지현(검사, 검찰내 성폭행 제보)**

호루라기 언론상 **김영태(CBS·노컷뉴스 선임기자)**
최기훈(뉴스타파 기자)

2018년 지구촌은 미국의 한 영화제작자의 추악한 성폭력을 폭로하기 위해 시작된 'Me Too운동'으로 연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놀랍게도 가장 강력한 공권력집행기관이면서도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악명이 높은 검찰에 소속된 현직검사였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성폭력을 자행하고 인사권을 오남용한 검찰간부를 내부고발하여 우리 사회, 특히 기득권사회의 권력지대인 정계, 교육기관, 언론계 등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Me Too운동'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서 검사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자정노력으로 앞으로 2018년은 성폭력에 대한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호루라기상이 무한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을 이루어낸 용기를 내어 준 서 검사님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 제2의 서지현이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나타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올해의 호루라기언론상 첫 수상자는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입니다. 최기훈 기자는 비밀보안을 방패삼아 취재방해가 일상화된 국방안보관련 부패와 공익제보를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하여 투명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 기자가 보도한 군의 납품비리와 국정원 내부고발자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보도는 공익제보와 부정부패근절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사안임을 보여주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최 기자님의 보도로 우리가 공익제보를 하나의 사건처럼 받아들이고 구조적 대응이나 사후점검에 소홀할 때 부정부패를 제대로 근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한 개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오히려 부담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김영태 CBS노컷뉴스 선임기자입니다. 김영태 기자는 탐사보도라는 집중 취재 시리즈 보도의 방식으로 언론의 공익발전기능을 확산한 공로가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형적인 사회부조리인 사학비리의 민낯을 연속 보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리사학의 가해를 보도하여 사회문제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피해자인 학교비정규직, 공익제보공무원, 기간제 강사, 시간강사, 채용비리에 좌절한 사람들을 집중취재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논리적, 이론적 근거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계의 오랜 현안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최초로 보도하면서 “유치원은 학교다”라는 명제를 기초로 에듀파인을 유치원에도 전면 도입하도록 이끌고 어린 원생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을 상대로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입법운동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들은 상업화와 정치화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 언론계에 공익제보와 공익확산의 장으로 언론이 여전히 의미를 가짐을 확인시켜 준 대표사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축하공연: 吉音 판소리

(사)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2010년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활동을 해왔습니다.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집단상담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상담프로그램을 마치고 '吉音 판소리'로 치유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통해 그동안 겹겹이 쌓여있던 마음의 응어리를 소리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길음판소리 모임은 또 다른 형태의 치유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임진택 명창의 지도하에 진행하는 문화치유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후원회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吉音 판소리' 모임의 주된 구성원인 국가폭력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군사독재정권하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어 십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민주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온갖 고초를 당한 노동운동가들입니다.
'길할 吉, 소리 音'을 뜻하는 '吉音 판소리' 모임의 이름은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에서 따왔습니다. '吉音 판소리' 모임은 오랜 세월 기가 눌려 지내던 국가폭력피해자들이 소리를 내지르면서 기를 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매주 신명나는 판소리를 통해 묵인 마음을 풀고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11.22 재일동포간첩조작사건 40주년기념 집회'(일본 오사카, 2015), '민주가족송년의 밤(2017)', '민가협총회(2018)', '민청학련 출판기념회(2018)' 등 초청공연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연대와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 참고 -

"2014년 문화치유 프로그램 뒷풀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 판소리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30년 동안 소리를 한 번도 못 질러 봤다고 했다. 그때 '아차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었다. 30년 동안 소리를 한 번도 질러보지 못했다는 것은, 기가 죽어지냈다, 기가 눌렸다는 표현이다. 기 한번 펴고 싶다는 소리로 들렸다. 기를 펴게

하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활력과 생기가 돌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 아닌가. 판소리는 예술문화치유의 한 부분이지만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의 생명력을 발산시키는 것이 판소리 치유의 강점이다. 예술·문화는 카타르시스의 힘을 주는 것을 넘어 치유의 기능도 있다.”

– 판소리 지도: 임진택 창작판소리 명창

(사)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는 인권피해자를 돕고, 사람을 진정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보건의료인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피해자들의 의료·법률·생활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5일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전문 민간 치유단체인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을 개설하였습니다. ‘숨’은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 전문 민간 치유센터로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치유와 재활을 통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인권피해자 치유지원사업입니다. 국가폭력 등 인권피해자 개인·집단상담프로그램과 吉音판소리 모임 등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개소 5주년) 기념행사 공연〉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는
공익제보자를 뜻합니다.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경고와 각성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으로, 우리 사회를 지키는
‘빛과 소금’입니다.

양심냉장고 호루라기재단 .horuragi.or.kr

주소 (066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0 2층(서초동, 세환빌딩)
전화 02-2068-6930 팩스 02-2068-6963 이메일 horuragif@gmail.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49655 재단법인 호루라기
농협 301-0107-3005-61 재단법인 호루라기